

유산에 의한 부식초점투사와 처소격도치구문

양 상 백* · 장 세 은**

Focus Projection and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

Sang-Baek Yang · Sea-Eun Jha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English inverted constructions bringing about some syntactic movements would trigger focus movement at a level of syntactic representation. To do so, we will examine some arguments for focus projection of a focussed element in the English clausal structure. Especially based on asymmetry of main clause and embedded clause with respect to *wh*-questioned, topicalized, and focussed elements, we will point out that there is a hierarchical order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of systematic explanation. We also suggest that CP appears only in the embedded clause, not in the main clause. Finally we argue that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 in English is an instance of focus projection.

1. 서론

다음은 영어의 단문에서의 통사적인 이동에 있어서 주어-조동사(아래 예문(1)-(2)) 또는 주어-동사(아래 예문(3))와 같은 도치현상이 있는 전형적인 예문이다.

- (1) What is Mike drinking?
- (2) Not only tea is Mike drinking?
- (3) Onto the ground had fallen a few leaves.

(1)은 *wh*-의문문, (2)는 부정어전치구문(negative-preposing construction), 그리고 (3)은 처소격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이다. (1)-(3)에서 문두에 나온 요소의 위치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에서는 이를 CP의 지정어자리([Spec CP]), (2)

* 동서대 외국어학부 영어영문전공 전임강사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과 전임강사

에서는 CP의 지정어자리((Spec CP)) 또는 IP의 부가위치((IP-adjunction))로, (3)에서는 CP의 지정어자리((Spec CP)) 또는 IP의 부가위치((IP-adjunction)), 그리고 최근에는 IP의 지정어자리((Spec IP))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2)와 같은 부정어전치구문에서의 *Not only tea*의 기착지는 극투사범주의 지정어자리((Spec PolP))로 분석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구문이 복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 (4) I am wondering what Mike is drinking.
- (5) I am wondering that not only tea is Mike drinking.
- (6) I am wondering that onto the ground had fallen a few leaves.

복문에서의 *wh*-의문문의 매입인 (4)는 (1)의 단문의 경우와는 달리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5)의 부정어전치구문과 (6)의 처소격도치구문은 단문에서와 같이 주어-조동사 또는 주어-동사의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위의 단문의 (1)-(3) 그리고 복문의 (4)-(6)과 같은 구문에서, 통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도치현상이 초점이동을 위한 trigger임을 주장하고 그 이동을 위한 기착지로 초점투사범주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1)과 같은 구문에서도 *wh*-의문 요소가 초점투사의 지정어자리에 기착지를 갖는다는 우리의 주장이 (4)와 같이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¹⁾ 이를 위하여 2절에서는 매입절에서 주제화구문과 부정어전치구문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종래의 부정어전치구문을 도치된 주제화구문 또는 극투사범주의 지정어자리((Spec PolP))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초점투사범주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주절과 매입절의 비대칭적 특징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wh*-요소와 주제화요소, 초점요소 사이에는 계층적순서가 존재함을 논의한다. 여기서 우리는 주절에서는 CP가 존재하지 않고 매입절에서만 CP가 존재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제화구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처소격도치구문도 주제화구문과의 차이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처소격도치구문도 부정어전치구문과 같은 통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구조적 초점구문의 하나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4절은 앞절에서 논의된 것들의 요약이다.

2. 주제화구문과 초점투사범주

2.1 부정어전치구문에서의 두가지 통사적인 특성

부정어전치구문은 주어-조동사 도치를 수반하지 하는 경우(7a)와 그렇지 못한 경우(7b)의 두가지 통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 (7) a. With no job would John be happy.
- b. With no job John would be happy.

1)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매입절에서의 *wh*-요소는 FP의 지정어 자리를 거치지 않고 CP의 지정어 자리로 곧바로 가기 때문이라 가정한다.

영어에서 주어-조동사 도치는 의문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a)와 같이 부정성분이 문장앞으로 이동되었을 때도 일어난다. 그러나 (7b)와 같이 부정어구의 전치가 일어나더라도 주어-조동사 도치가 수반되지 않기도 한다. 의미적으로는 (7a)와 (7b)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7a)에서 부정어는 전체절을 의미역으로 가지나 (7b)는 그렇지 않다. (7a)의 의미는 다음 (8)로 부연될 수 있다.

(8) John wouldn't be happy (with any job)

대조적으로 (7b)에서는 부정어가 전체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having job'을 부정하는 성분의미역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적인 사실에서 부정어구들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7)과 같은 부정어전치구문의 두 가지 통사적인 특성은 매입절에서도 나타난다.

(9) a. Mary said that with no job would John be happy.
 b. Mary said that with no job John would be happy.

(7)과 (9)의 부정문에서의 부정어전치구문 뿐만 아니라 긍정문에서도 부정어전치구문이 갖고 있는 두가지 통사적인 특성을 보여준다.³⁾

(10) a. Only on Fridays will the traffic be too heavy.
 b. Only on Fridays the traffic will be too heavy.
 (11) a. It is apparent that only on Fridays will the traffic be too heavy.
 b. It is apparent that only on Fridays the traffic will be too heavy.

(10)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 "only"를 수반하는 어구도 단문과 복문에서 주어-조동사 도치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2.2 주제화 구문과 초점구문

(7)-(11)에서 단문과 복문에서의 주어-조동사의 도치와 관련된 의미적인 차이를 어떻게 통

2) Rochemont(1986)에 의하면 이러한 의미적인 차이를 가져다 주는 주어-조동사 도치구문을 구조적 초점구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는 도치를 수반하는 부정어구는 CP의 지정어자리에 있는 지정어-중심어 관계에 의하여 절 의미역을 인허하는 반면에, 도치를 수반하지 않는 부정어구는 부가어위치에 있어 지정어-중심어의 일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절의미역을 가질수 없다고 하여 그 의미적인 차이점을 부정어구의 통사적인 위치에 의하여 설명한다

3) Horvath(1986)에 의하면 헝가리어에서 동사뒤의 보문이 초점이 되면 보문이 전치되어진다.

(i) Janos Evat vaarta a moze elott.
 John Eve-Acc waited the cinema in-front-of
 'John waited for EVE in front of the cinema'

이러한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Brody(1990)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헝가리어에 Focus Phrase를 투사하는 동사 위에 기능범주 F가 존재하며 초점자질은 F위치에서 동사에 의하여 부과된다고 제안하면서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성분은 지정어-중심어관계에 의하여 초점해석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사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도치를 갖지 않는 전치요소를 주제화로,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를 초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의 논의를 하기 전에 우선 주어-조동사 도치를 수반한 전치구문을 어떻게 다루었는 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Rochemont(1978)에 의하면 도치를 수반하여 앞으로 이동한 부정어구문이나 so구문은 *wh* 의문문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로 초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Did you see anyone?

(13) a. No, not a single person did I see.

b. Yes, so many people did I see that I was amazed.

(12)의 yes-no 의문문의 답으로써 (13a)의 부정어구와 (13b)의 so구문이 쓰였으나, *wh*-어구의 대답과 같이 신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는 신정보를 가지는 초점의 역할을 한다.

Yanagida(1996)도 주어-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된 요소는 초점요소이며 이러한 특성은 단문 뿐만 아니라 매입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다음의 (14)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문에 초점투사의 범주가 있다고 제안한다.⁴⁾

(14) a. Only on Fridays will the traffic be too heavy.

b. Lee said that only on Friday will the traffic be too heavy.

또 다른 선행연구로 Authier(1992)와 Watanabe(1993)는 도치가 수반되든 안되든 전치구문을 주제화구문으로 다루고 있다. 즉, 주제화구문이나 주어-조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는 전치요소를 같은 주제화구문으로 보았다. 이러한 설명을 위하여 이들이 논의한 매입절에서의 구문을 살펴보자.

(15) a. I think that, to Lee, Robin give?

b. Lee said that, on the table, she is going to put the yellow dishes.

c. Robin says that, the birdseed, he is going to put in the shed.

(16) a. Lee said that at no time would she agree to visit Robin.

b. It is apparent that only on Friday will the traffic be too heavy to get three in time.

c. The fact that on not a single hat was there a propeller indicates how far the beanie has fallen in modern times.

매입절에서 일반적으로 (15)는 주제화구문이라 하고 (16)은 도치된 주제화구문이라 한다. 그들은 (15)와 (16)을 다음 (17)의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4) Yanagida(1996)는 초점투사범주를 동사구와 IP사이에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17) . . . [_{CP} that [_{CP} Topic [_{C'} C [_{IP} . . .]]]]

위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영어의 매입절에는 CP가 두 개가 있으며 주제화요소는 두 번째 CP의 지정어자리에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입절에서 나타나는 주제화구문과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는 주제화구문 사이에는 추출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 (18) a. *On which table did Lee say that these books she will put.
 b. On which table did Lee say that only these books would she put.
- (19) a. *Which books did Becky say that to Aaron she will give?
 b. Which books did Becky say that only to Aaron will she give?
- (20) a. *This is the book that John said Mary_i he would informed t_i that I had read.
 b. This is the book that John said that only Mary_i would he informed t_i that I had read.

Culicover(1991)에 의하면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18-20)의 (a)예문과 같은 주제화구문은 통사적인 제약이 있는 반면에 도치를 유발하는 (b)와 같은 구문은 통사적인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wh*-이동과 같은 통사적 제약에 대한 문법성의 대조를 볼 수 있다. 즉 도치를 유발하지 않는 주제화 요소와 도치를 유발하는 주제화요소는 서로 다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전치요소는 주제화요소이며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요소는 주제화요소가 아닌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되어진 요소는 초점요소라고 부르며 이러한 초점요소를 위한 별도의 기착지가 존재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서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1) To John, nothing would we give.
- (22) a. Becky said that these books, only with great difficulty can she carry.
 b. He said that beans, never in his life had he been able to stand.

(21)은 단문에서 주제화요소 "To John"과 도치를 수반한 부정어 전치요소 "nothing"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22)의 복문에서도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한 전치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Authier(1992)와 Watanabe(1993)가 주장하듯 이들 구문이 주제화구문이라면 영어에서 두 개 이상의 주제화요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 (21)과 (22)는 비문으로 예측되어야 하나 이 문장들은 정문이다.⁵⁾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21)과 (22)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5) 물론 매입절에서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i)과 같이 모두 비문이 된다.
 (i) a *Becky said that these books, only with great difficulty she can carry.
 b *He said that beans, never in his life he had been able to stand.

없다. 그래서 두 요소는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 요소가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어떤 통사적인 제약이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3) *Nothing, to John, would we give.

(24) a. *Becky said that only with great difficulty, these books, can she carry.

b. *He said that never in his life, beans, had he been able to stand.

앞의 예문 (21)과 (22)에서와는 달리 단문(23)과 복문(24)에서 이들 요소의 순서를 뒤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는 두 요소 사이에 순서적인 계층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요약하면 여기서 우리는 주제화구문과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구문과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를 초점요소로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증거로서 (i) 추출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현상과 (ii)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의 공기현상(co-occurrence)을 제시하였다.

2.3 계층적 순서상의 특징

앞에서 우리는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유발하는 초점요소가 서로 다른 통사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는 이 두요소의 공기관계에서의 문법성의 대조에서 두 요소사이에 계층적인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먼저 단문에서의 두요소의 공기관계와 이들과 *wh*-요소간의 공기관계를 살펴보자.

(25) a. To John, nothing would we give

b. *Nothing, to John would we give.

(26) a. These prices, what can anyone do about (Langendoen 1979: 429)

b. *What these prices can anyone do about?

(25)에서 주제화 요소인 “to John”이 부정어전치요소인 “nothing”보다 앞서면 정문(25a)이지만 그 순서를 바꾸면 비문(*25b)이 된다. 또한 (26)에서 주제화 요소인 “these prices”가 *wh*-요소인 *what*보다 앞서면 정문(26a)인 반면에 그 순서를 바꾸면 비문(*26b)이 된다. 그러므로 (25)와 (26)의 문법성의 대조에서 주제화요소는 앞으로 이동한 *wh*-어구들 뿐만 아니라 부정전치요소(초점요소)보다 선행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wh*-어구와 초점요소와의 공기관계를 살펴보자.

(27) a. *On which table only with great difficulty would she put the big rock?

b. *Only with great difficulty on which table would she put the big rock?

(27a)에서 *wh*-어구가 먼저 오고 초점요소인 “only with great difficulty”가 다음에 오더라도 비문법적이다. 또한 (27b)에서 이들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역시 비문이 된다. 이는 *wh*-요소와 부정전치요소(초점요소) 모두가 같은 위치를 점유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영어에서 *wh*-요소

가 둘이상 나타나는 경우인 “*Who what bought” 등의 예문을 비문으로 예측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wh*-요소와 부정전치요소(초점요소)는 상보적인 분포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단문에서는 앞으로 이동된 요소들의 순서적 계층은 다음과 같다.

(28) 주제화요소 > *wh*-요소 또는 초점요소

또한 매입절에 나타나는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유발하는 초점요소 그리고 *wh*-요소간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자.

- (29) a. Becky said that these books only with great difficulty can she carry.
- b. *Becky said that only with great difficulty these books can she carry.

- (30) a. *I wonder this book to whom we should give.
- b. I wonder on which table only with great difficulty would she put the big rock.
- c. I wonder to whom this book we should give.

(29)의 문법성 대조에서 우리는 주제화요소가 초점요소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0)에서는 단문과는 달리 *wh*-요소가 주제화요소 또는 초점요소 모두를 선행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영어의 매입절에 나타나는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순서상의 계층은 다음과 같다.

(31) *wh*-요소 > 주제화요소 > 초점요소

단문과 복문에서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순서는 비대칭적이다. 이는 다음 (32)의 비교표에서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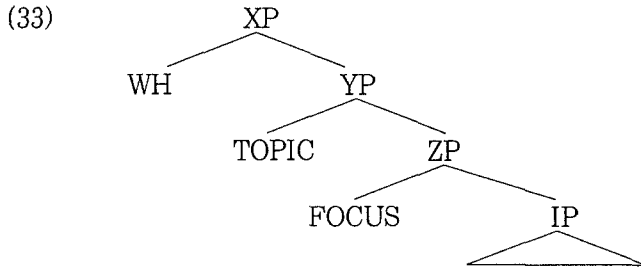
(32) 단문과 복문의 비대칭성

문 형	순 서
단 문	주제화요소 > <i>wh</i> -요소 또는 초점요소
복 문	<i>wh</i> -요소 > 주제화요소 > 초점요소

이러한 요소의 순서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보면 우리는 단문과 복문에서 각 요소가 점유하는 기착지의 투사범주의 계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계층간의 각 요소의 투사범주를 논하여 보자.

2.4 초점투사범주

복문에서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위의 각 요소의 투사범주인 XP, YP, ZP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이들 범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⁶⁾

- (34) a. *wh*-어구의 기착지로서의 XP: CP-spec, IP-spec
 b. 주제화요소의 기착지로서의 YP: CP-spec, CP-adjunction, IP-adjunction, FocusP
 c. 초점요소의 기착지로서의 ZP: CP-spec, IP-adjunction, FocusP

우리는 XP가 CP, ZP는 FP로 분석가능하며 *wh*-어구와 초점요소는 이들 범주의 지정어자리에 놓이며, YP는 FP로서 주제화요소는 FP의 부가어 위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는 주석 (6)의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초점투사범주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위의 (34)에 언급된 투사범주의 위치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 종래의 연구의 주된 관심분야만 논의하기로 하자.

2.4.1 주제화요소와 *wh*-요소사이의 단문과 복문에서의 비대칭성에 대한 선행연구

2.4.1.1 *wh*-요소와 주제화요소의 CP recursion 분석

Higgins(1973)가 주제화구문을 COMP로의 이동으로 분석한 이후로 주제화구문의 기착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Chomsky(1977)도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규칙을 설정하여 주제화구문을 COMP로의 대입(substitution)이동으로 분석한다.

- (35) a. S' → Top S'
 b. S → Comp {S'}
 {S}

6) 모든 가능성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빈칸에 적격으로 판별될 수 있는 것이 투사범주로 여겨진다. ⟨?⟩는 F 또는 또 다른 투사범주가 될 수 있다.

대입 또는 부가	XP			YP			ZP		
	C	I	?	C	I	?	C	I	F
지정어									
부가									

예를 들면 주석(2)에 언급되었듯이 2.1의 (7)의 의미적 차이점을 설명한 Rochemont(1978)의 분석에 의하면 초점요소인 ZP는 부가어가 아니라 CP의 지정어 자리에 적격으로 판별된다. 이와 같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면 YP가 CP 범주가 될 수 없음(25)의 문법성 대조에서 알 수 있다.

위의 제안에서 이동을 수행하는 것은 운용소이며 주제화요소는 S'에 기저생성 되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도치된 주제화구문(Inverted Topicalization)이라고 분석한다.

(36) John said [_{CP} that [_{CP} this book [_{IP} Mary should have read]]]

이러한 COMP로의 대입분석은 현재의 X'이론에 의하면 매입절에도 주제화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CP의 반복(recursion)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문제가 있다. 첫째, 위에서 주제화요소가 보문자 *that*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음 (37)과 같이 보문자 왼쪽에 나타날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37) a. *John said [_{CP} this book [_{CP} that [_{IP} Mary should have read]]]

b. *John said [_{CP} this book [_{C'} that [_{IP} Mary should have read]]]

(37a)와 같은 CP 부가어 분석이나 (37b)와 같은 CP 지정어분석 어느쪽도 (37)을 문법적 문장으로 잘못 예측하게 된다.

둘째, *wh*-어구들도 다음과 같이 주제화요소("liberty")의 왼쪽에 나타나기도 하나, 다음과 같이 다중 주제화현상은 비문이 되기 때문에 CP 부가어 분석에는 문제점이 있다.

(38) He's a man to whom liberty we could never grant (Baltin 1982)

(39) *On the desk, this book, John put.

(38)과 같은 복문에서 *wh*-어구와 주제화요소가 둘다 나타남으로 CP 반복분석이 타당성이 있는 듯 하나 (39)와 같은 단문에서는 이 분석이 문법성을 잘못 예측하게 된다.

2.4.1.2 *wh*-요소의 CP-spec 분석과 주제화요소의 IP-adjunction 분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Baltin(1982)은 주제화요소들이 IP에 부가된다고 보며 (37)과 같은 문장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분석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40) a. And this book, to whom should Bill give?

b. *To whom this book should Bill give?

c. *To whom should this book Bill give?

일반적으로 *wh*-요소들은 CP의 지정어자리로 이동을 한다고 가정되어지며 주어-조동사도치는 시제의 C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그녀의 IP부가분석에 의하면 (40a)는 비문이 되어야 하나 문법적인 문장이고, (40b)는 문법적인 문장이어야 하나 비문이다. 또한 (40c)에서 주제화요소인 "this book"이 IP에 부가되어 정문으로 예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비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매입절에서는 위의 경우와 달리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41) a. *I wonder this book to whom we should give
 b. ?I wonder to whom this book, we should give (Pesetsky 1989)

복문의 (41a)는 단문의 (40a)와는 달리 비문으로 올바르게 예측하고 또한 (41b)에서도 (40b)와 달리 약간 이상하나 정문으로 올바르게 예측한다. 이상에서 주제화요소의 IP-adjunction 분석은 복문에서는 설명력이 있으나 단문에서 *wh*-요소와 주제화요소간의 계층적인 순서를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하는 결점을 갖고 있다.

2.4.1.3 *wh*-요소의 IP-spec 분석과 주제화요소의 IP-adjunction 분석

이러한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atanabe(1988)와 Pesetsky(1989)는 주제화구문의 IP부가분석의 대안으로 주절에 나타나는 *wh*-요소들의 기착지를 IP의 지정어자리라고 주장하여 위 (40a)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 (42) a. And [_{IP} this book, [_{IP} to whom [_I should Bill give]]]?

그러나 이 분석도 단문에서는 설명력있게 올바르게 예측하나 이 또한 복문에서는 (41)과 같은 문법성을 정문으로 잘못 예측하므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도 주절과 매입절에서 나타나는 주제화요소와 *wh*-요소사이의 비대칭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없다.

요약하면 위에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다음 도표에 나타나듯이 단문과 복문에서의 *wh*-요소와 주제화요소간의 계층적 순서상의 비대칭성을 일관성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43) 선행연구의 주제화요소와 *wh*-요소사이의 비대칭성의 설명력 비교

구 분	선 행 연 구	단문에서의 설명력	복문에서의 설명력
분석 I	<i>wh</i> -요소와 주제화요소의 CP recursion 분석	NO	YES/NO
분석 II	<i>wh</i> -요소의 CP-spec 분석과 주제화요소의 IP-adjunction 분석	NO	YES
분석 III	<i>wh</i> -요소의 IP-spec 분석과 주제화요소의 IP-adjunction 분석	YES	NO

2.4.2 주제화요소, *wh*-요소, 초점요소간의 단문과 복문에서의 비대칭성

위의 도표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기존의 IP와 CP의 투사범주만으로는 단문과 복문에서의 주제화요소와 *wh*-요소간의 순서상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잘 포착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적어도 두가지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단문과 복문을 형성하는 투사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문과 복문을 형성하는 투사의 유형이 기존의 분석과 같다고 하더라도 IP와 CP사이에는 또 다른 투사범주가 존재하여 이러한 비대칭성을 일관성있게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2.2에서 주제화요소는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를 초점요소와 다른 범주로 설정해야 하는 증거로 (i) 추출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현상과 (ii)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의 공기현상(co-occurrence)의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두 번째 가설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IP와 CP사이에는 또 다른 기능범주인 초점투사 FP(focus projection)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러한 초점요소의 기착지인 FP와 함께 단문과 복문에서의 주제화요소와 *wh*-요소간의 순서상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살펴보자.

2.3의 (32)에서 요약했듯이 복문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계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44) [CP *wh*-요소_i [FP 주제화요소_j [FP 초점요소_k [IP . . t_i . . t_j . . t_k . .]]]]

위의 (44)의 분석을 이용하여 (43)에 언급된 선행연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NO”의 부분의 예문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wh*-요소와 주제화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를 살펴보자. 아래 (45)예문은 (38)의 반복이다.

- (45) a. He’s a man to whom liberity we could never grant.
- b. *I wonder this book to whom we should give.

(45a)는 분석 I 과 분석 II로 설명 가능하나 분석 III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45b)에서 분석 I, III은 정문으로 잘못 예측하나 분석 II은 비문으로 올바르게 예측한다. 분석 II와 같이 (44)의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45a)는 “to whom”은 C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나고 주제화요소인 “liberty”는 매입절에서 CP보다 하위의 위치에 나타남으로 정문임을 올바르게 예측하고 또한 (45b)도 비문으로 올바르게 예측한다.

다음으로 *wh*-요소와 초점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를 살펴보자. 아래 (30a)예문은 (46a)의 반복이다.

- (46) a. I wonder on which table only with great difficulty would she put the big rock.
- b. *I wonder only with great difficulty on which table would she put the big rock.

(46)의 “only with great difficulty”를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주제화요소로 본다면 분석 I, II는 a-b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예측하나 분석 III은 문법성을 반대로 잘못 예측한다. 그러나 이 요소를 우리가 제안한 대로 초점요소로 여겨 (44)의 분석으로 적용하면 *wh*-요소는 C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나고 초점요소는 매입절에서 CP보다 하위의 위치인 FP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나므로 (46a-b)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예측한다.

끝으로 주제화요소와 초점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를 살펴보자. 아래 (47a-b)예문은 각각

(22a)와 (24a)의 반복이다.

- (47) a. Becky said that these books, only with great difficulty can she carry.
- b. *Becky said that only with great difficulty, these books, can she carry.

(46)과 같이 “only with great difficulty”를 기존의 연구의 주제화요소로 본다면 기존의 분석 I, II, III은 (47) 예문의 문법성의 대조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즉, (47a)을 정문으로 올바르게 예측한다 하더라도 (47b)의 비문인지를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인 (44)를 적용하면 주제화요소인 “these books”가 초점요소인 “only with great difficulty”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47a-b)의 문법성을 올바르게 예측한다.

단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2.3의 (32)에서 요약했듯이 단문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계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은 (48) 또는 (49)의 구조중 어느 한가지를 가질 수 있다.

- (48) [YP 주제화요소_i [ZP *wh*-요소_j [IP . . . t_i . . . t_j . . .]]]
- (49) [YP 주제화요소_i [ZP 초점요소_j [IP . . . t_i . . . t_j . . .]]]

위의 구조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YP와 ZP의 기능범주는 적어도 8가지 가능한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⁷⁾ 이들 8가지 중에서 어느 범주의 조합이 가장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의 선행연구인 (43)의 세가지 분석방법(분석 I, 분석 II, 분석 III)을 이용하여 단문에 적용하여 보자.

우선 단문에서의 *wh*-요소와 주제화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를 살펴보자. 편의상 (40)의 예문 (여기서는 (50))을 다시 살펴본다.

- (50) a. And this book, to whom should Bill give?
- b. *To whom this book should Bill give?
- c. *To whom should this book Bill give?

앞에서 우리가 관찰했듯이 (50)에서 분석 I, II는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나 분석 III은 이를 설명한다. 한편 (48)의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XP와 ZP의 최적의 조합가능성을 살펴보자. 우선 분석 III만이 이러한 순서상의 단문에 적절하게 적용이 되므로 분석 I, II에서 택한 CP 범주가 XP 또는 ZP의 조합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단지 IP만이 이들의 범주로 선

7) YP와 ZP의 기능범주에 대한 8가지의 조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가능한 범주 조합	YP	ZP
(a)	IP-adjunction	IP-adjunction
(b)	IP-adjunction	IP-spec
(c)	CP-adjunction	CP-spec
(d)	CP-spec	IP-adjunction
(e)	CP-spec	IP-spec
(f)	CP-adjunction	FP-spec
(g)	CP-spec	FP-spec
(h)	FP-adjunction	FP-spec

단문에 CP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 표에서 이들의 기능범주로는 (a), (b), 그리고 (h)의 조합이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단문과 복문의 비대칭성에 대한 통일된 설명을 위하여 (h)의 가능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IP 대신 다른 범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XP와 ZP의 범주 가능성을 IP만을 선정한다면 분석Ⅲ이 단문에서는 설명력이 있으나 복문에서는 설명력이 없음을 2.4.1.3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IP가 아닌 다른 범주를 가정해보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합 가능성은 주석 (7)에서 관찰하였듯이 (f)의 조합가능성인 FP의 범주이다.⁸⁾ *wh*-요소와 초점요소의 투사범주로 이러한 FP의 범주를 단문에도 설정한다면 우리가 단문과 복문에서의 *wh*-요소와 주제화요소간의 계층적 순서상의 비대칭적인 특징을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위의 (50a)에서 *wh*의문사 “to whom”은 도치를 유발하는 초점요소이어서 이러한 초점요소는 FP의 지정어자리에 나타나 주제화요소인 “this book”보다 하위에 나타날 수 있다. (50b)의 경우, 주절에서는 CP가 존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wh*-요소가 CP의 지정어자리가 존재하지 않아 FP의 지정어자리에 나타나야 하나 주제화요소보다 상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50c)의 경우도 도치가 일으킨 의문사 “To whom”이 초점요소로서 FP에 나타나야 하나 상위의 주제화요소 “this book”보다 먼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단문에서의 주제화요소와 초점요소간의 계층적 순서를 살펴보자. 편의상 (25)의 예문(여기서는 (51))을 다시 살펴보자.

- (51) a. To John, nothing would we give.
- b. *Nothing, to John would we give.

(51a)도 역시 도치를 유발한 “nothing”은 초점요소의 FP의 지정어 자리에 오며 FP의 부가어 자리인 주제화요소보다 하위에 나타나서 정문이며 (51b)는 이와 반대의 위치를 가지기 때문에 비문이라고 올바르게 예측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로 정리된다.

8) 이러한 유사한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PolP의 투사범주 설정이다. Culicover(1991)에 의하면 주문에는 CP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이동한 *wh*어구들은 다음과 같이 lower PolP의 지정어자리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i) a. Matrix clauses lack CP

 b. [_{PolP} what did [_{Ag_{rs}p} you buy t]]

복문에서도 Culicover(1991)나 Koizumi(1994)는 다음 예문의 (51)과 같은 부정전치구문에 극투사라는 독립적인 투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ii) [_{CP} C [_{PolP} Topic [_{PolP} PNC [_{Pol'} Pol [_{IP} . . . t_i . . .]]]]]

(여기 PNC는 polarity negative constituent의 약어이다.)

그들은 주어-조동사의 도치를 유발하는 전치요소(즉 초점요소)는 PolP의 지정어자리((Spec PolP))에 놓인다고 한다. 주제화요소는 PolP의 부가어 위치에 온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점요소나 주제화요소를 모두 주제화요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주설정의 분석은 분석I과 매우 흡사하나 분석I의 문제점을 여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단문과 복문에 일관성있게 별도의 PolP이라는 범주를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하였다.

(52) 선행연구의 분석방법과 FP분석과의 비교

a. 복문에서의 설명력

예 문		복 문			
		분석 I	분석 II	분석 III	FP분석
wh-요소와 주제화요소	(45a)	○	○	×	○
	(45b)	×	○	×	○
wh-요소와 초점요소	(46a)	○	○	×	○
	(46b)	○	○	×	○
주제화와 초점요소	(47a)	×	×	×	○
	(47b)	×	×	×	○

b. 단문에서의 설명력

예 문		단 문			
		분석 I	분석 II	분석 III	FP분석
wh-요소와 주제화요소	(45)	×	○	×	○
wh-요소와 초점요소	(27)	×	×	×	○
주제화와 초점요소	(51)	×	×	×	○

위의 비교 분석에서 우리가 제시한 FP의 분석은 단문과 복문에서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계층상의 순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일관성 있게 문법성의 대조를 올바르게 예측한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주제화구문과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구문과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를 초점요소로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증거로서 (i) 추출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현상과 (ii)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의 공기현상(co-occurrence)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하여, 선행연구의 세가지 분석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종래의 부정어전치구문을 도치된 주제화구문 또는 극투사범주의 지정어자리((Spec PolP))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초점투사범주 분석을 제시하였다. 더우기 여기서 우리는 단문의 경우 CP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3. 처소격도치구문

이 절에서 우리는 처소격도치구문이 앞에서 주장한 FP분석의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처소격도치구문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1)의 *wh*-의문문 이나 (2)의 부정어전치구문과 같은 주어-조동사 도치는 수반하지 않으나 주어-동사의 도치를 수반한다. 우선 처소격도치구문의 단문과 복문에서의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2절에서와 같은 논의 방법으로 선행연구의 분석을 비교 검토하여 전치된 요소의 통사적 위치가 FP의 지정어 자리에 기착지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처소격도치구문의 구문적 특징

처소격도치구문의 전형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53) In the distance **appeared** the towers and spires of a town which greatly resembled Oxford.

[L. Bromfield, *The Farm*, 124, B. Levin and M. R. Hovav (1995: 218)]

위의 예문 (53)은 아래의 예문 (54)의 일반적인 어순인 “NP V PP”에서 NP와 PP의 위치가 바뀌어진 “PP V NP”의 어순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 구문은 위치(locative) 또는 방향(directional)의 PP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표면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53)과 같은 구문을 일반적으로 처소격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이라 일컫는다.

(54) The towers and spires of a town which greatly resembled Oxford **appeared** in the distance.

처소격도치구문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55) a. Among the quest were John and his family.

b. Down the stairs fell the baby.

앞의 (53)에서의 *appear*와 같은 소위 unaccusative 동사류인 (55a-b)의 *be* 동사와 *fall*은 처소격도치구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처소격도치구문에서 항상 unaccusative 동사류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자.

(56) a. Down the hill rolled the baby carriage.

b. Into the room walked John.

(56a-b)에서와 같이 unergative 동사인 *roll* 또는 *walk*가 나타나기도 한다.

- (57) a. Onto the ground had fallen a few leaves. (= (3))
 b. On that table was put a valuable book.

법조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인 (57a)에도 unaccusative 또는 unergative 동사 어느 쪽의 한정적인 동사류가 오면 처소격도치가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57b)과 같은 *be+pp*형을 갖는 수동동사에도 이 구문을 허용한다.

위에서 우리는 처소격도치구문의 일반적인 다섯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53-54)에서 볼 수 있듯이 처소격도치구문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둘째, 모든 동사가 이러한 구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타동사는 처소격도치구문을 허용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56)의 unergative 자동사 보다는 (55)의 unaccusative성을 갖고 있는 자동사류가 이런 구문을 훨씬 더 용이하게 허용한다.⁹⁾ 셋째, (57a)에서와 같이 모든 법조동사가 이 구문을 허용하지는 않고 더 단순한 시제를 가질 때 훨씬 더 용이하게 허용한다. 넷째, 처소격도치구문이 매입절일 경우 주절의 동사의 특성에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58)과 같이 매입절에서 나타날 경우에는 비문이 되나 (59)와 같이 *say, think*와 같은 "bridge" 동사의 경우에는 매입절에서 처소격 도치구문이 가능하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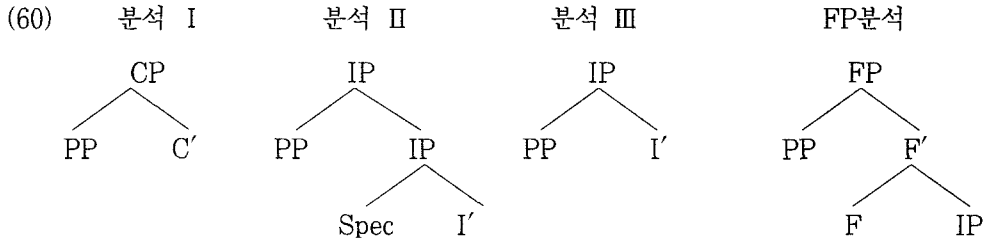
- (58) a. *He denied that down the hill rolled the baby carriage
 b. *He regretted that down the stairs fell the baby.
 (59) a. John said that into the room walked Bill
 b. John thought that under the tree sat a man

끝으로 전치된 요소가 주어적인 특성, 주제화의 특성, 또는 초점화의 특성이라는 혼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¹¹⁾

3.2 선행연구 분석과 초점투사(FP)의 분석

전치된 요소인 PP의 통사적인 위치로 논리적으로 다음 네가지의 분석이 가능하다.¹²⁾

- 9) 그러나 Levin and Hovav(1995)는 처소격도치구문을 허용하는 동사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영어에서의 처소격도치구문은 unaccusativity test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0) Aissen(1975)와 Green(1976)을 참조.
 11) 전치된 PP의 통사적 주어 특성으로는 일반적으로 (i) subject raising (ii) tag questions (iii) subject extraction (*that*-trace effects) (iv) extraction from coordinate constituents (gapping)로 논의된다. 특히 Bresnan(1994)는 GB이론에서의 S-구조와 유사한 LFG의 f-구조에서 도치된 PP가 주어라고 주장한다. Levin and Hovav(1995)도 담화-기능적 분석으로 전치된 PP를 도출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주어적인 특성을 있음을 지적한다.
 12) (60)에 주어진 네가지 가능성은 앞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방법이다.



(60)에 제시된 분석들의 가능성을 차례로 그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여 보자. 우선 전치된 요소인 PP가 CP의 지정어 자리에 놓이는 분석 I은 두 가지 점에서 논리적인 단점을 찾을 수 있다. 2절에서 논의되었듯이 단문에서 CP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분석을 제안할 수 없다. 더욱이 아래 예문 (61)과 같이 복문에서 *wh*-요소와 함께 전치된 요소인 PP가 나타난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 (61) a. We all witnessed how down the hill came rolling a huge baby carriage.
 b. We suddenly saw how into the pond jumped thousands of frogs.
 [Bresnan 1994: 102]

(61)에서 이미 *wh*-요소인 *how*가 매입절에서 CP 지정어 자리를 채우고 있으므로 전치된 요소인 PP가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가 CP 지정어 자리일 수 없다.

다음으로 분석 II를 살펴보자. 전치된 요소인 PP가 IP에 부가되는 경우이다. 이는 상승효과(raising effect)와 통사적 추출현상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부가어 자리와 지정어 자리의 특성에 의하여 분석 II의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이 분석은 다음 예문 (62)가 보여주는 상승효과(raising effect)에 의해 배제시킬 수 있다.

- (62) a. In the garden appeared to be a unicorn.
 b. Under the tree seemed/appeared to sit a man with long blond hair.

전치된 PP가 상위절로 상승되어 있는 요소는 부가어 위치가 아니라 지정어 위치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인 IP의 부가어 위치에 오는 요소와 지정어 자리에 오는 요소 사이에는 추출과 관련한 통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 예문이 보여주는 문법성의 대조를 살펴보자. (Levine 1989)

- (63) a. That was the sea lion [into whose mouth]_i two people sat watching a trainer trying to stuff fish all day long t_i.
 b. *That was the sea lion [into whose mouth]_i sat two people watching a trainer trying to stuff fish all day long t_i.

(6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어 위치에 오는 요소는 unbound extraction이 가능하나 주어-동사의 도치를 수반한 처소격도치구문인 (63b)에서는 이러한 추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치된 PP인 *into whose mouth*의 위치는 부가어 위치가 아니라 지정어의 위치어야 한다.

세 번째의 분석 가능성인 IP의 지정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즉 분석Ⅲ에 의하면 전치된 PP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자리로서 주어적인 특성(subjecthood)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석 (11)에서의 통사적인 주어특성과 앞의 (61)-(63)의 예에서 관찰된 부가어와 지정어 자리의 통사적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분석Ⅲ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 분석이 위에서 다루진 CP-Spec(분석 I)과 IP-adjunction(분석Ⅱ)보다는 설명력이 있다. 그러나 분석Ⅲ은 다음에 제시되는 세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치된 PP가 통사적인 주어특성이 있다면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야 하나 yes-no 의문문이나 *wh*-요소의 pied piping구문에서의 문법성을 잘못 예측해 준다.

- (64) a. *Did into the room walk John?
 b. *Was under the table a cat?
 c. *Did there run into the room several overexcited fans?
 (M.S. Rochemont and P.W. Culicover 1990: 27)

- (65) *Into which room walked John?
 (M.S. Rochemont and P.W. Culicover 1990: 86)

yes-no 의문문의 (64)와 pied piping구문의 (65)에서 전치된 PP가 주어라면 이들 모든 예문은 정문으로 예측해야하나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인 주어의 특성은 yes-no 의문문에서 주어-조동사의 도치를 수행해야하나 (64)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65)에서 전치된 PP가 주어요소라면 *wh*-의문문인 (65)는 정문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64)와 (65)에서 전치된 PP에는 주어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전치된 PP가 주어라면 ECM구문에서 특히 unaccusative성을 갖고 있는 매입절의 주어가 object raising을 흔히 일어나지만 예측과는 달리 처소격도치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¹³⁾

- (66) *Mary believed under the tree to sit a man with long blond hair.

전치된 PP인 *under the tree*가 매입절의 주어성을 갖고 있었다면 ECM의 주절의 목적어 위치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Ⅲ은 목적어 상승시 오히려 (66)의 비문을 정문으로 잘못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부가의문문(tag question)을 살펴보자. 주어특성의 전형적인 주어검정방법인 부가의문문에 의하면 선행절의 주어는 부가의문문의 대명사가 된다. 다음 예문을 비교하여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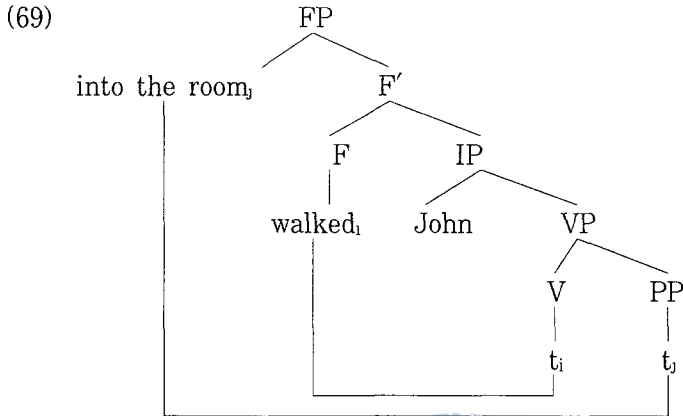
- (67) a. In the room are Mary and her husband, aren't they?
 b. In the room are Mary and her husband, aren't there?

전치된 PP가 주어라면 (67b)는 올바르게 예측하나 (67a)의 문법성을 잘 설명하여 주지 못한다. 위 (64)-(67)에서 의문문의 주어-동사 도치, ECM, 부가의문문 등의 세가지 구문을 통하여

13) 그러나 우리의 제안과는 달리 Bresnan(1990)은 앞으로 전치된 전치사구는 topic과 subject성을 둘 다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석Ⅲ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는 FP분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처소격도치구문의 (68)은 FP분석으로는 (69)와 같다.

(68) Into the room walked John.



(68)은 (69)와 같이 동사가 초점투사의 중심어 F로 이동하여 주어-동사 도치를 유발시키고 전치된 PP는 초점자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한다.

복문에 처소격도치구문이 매입될 때 FP 분석 방법은 단문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를 보기 위하여 *wh*-요소와 함께 공기현상을 갖는 예문을 살펴보자. (아래 (70) = (61))

- (70) a. We all witnessed how down the hill came rolling a huge baby carriage.
- b. We suddenly saw how into the pond jumped thousands of frogs.

편의상 (70a)는 FP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71) We . . . [CP how [FP down the hill [F came [IP rolling a huge baby carriage]]]]

wh-요소인 *how*는 CP의 지정어 자리로 가장 먼저 이동하고 동사 *came*이 초점투사의 중심어 F로 이동하여 주어-동사 도치를 유발시키고 전치된 PP인 *down the hill*는 초점자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한다.

요약하면 전치된 요소인 PP의 통사적인 위치의 논리적인 네가지의 분석중 분석Ⅲ과 FP분석이 분석 I 과 분석Ⅱ보다는 타당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분석Ⅲ의 단점을 지적하였고 처소격도치구문도 *wh*-의문문과 부정어전치구문과 같이 단문과 복문의 통사적 분포를 일관성 있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초점투사구문의 한 유형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결 론

우리가 제시한 FP의 분석은 단문과 복문에서의 *wh*-요소, 주제화요소, 초점요소간의 계층상의 순서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일관성 있게 문법성의 대조를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주제화구문과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구문과의 통사적, 의미적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를 초점요소로 구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두 가지 증거로서 (i) 추출에 대한 통사적인 제약현상과 (ii) 주제화요소와 도치를 수반하는 전치요소의 공기현상(co-occurrence)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세가지 분석방법을 비교 검토하고 종래의 부정어전치구문을 도치된 주제화구문 또는 극투사범주의 지정어자리((Spec PolP))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초점투사범주 분석을 제시하였다. 더우기 여기서 우리는 단문의 경우 CP의 범주가 존재하지 않음도 관찰할 수 있었다.

서로 독립된 별개의 구조적 구문으로 여겼던 *wh*-의문문, 부정어전치구문과 최소격도치구문은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통사적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세 구문은 두가지면에서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세 구문 모두에는 단문과 복문에 FP가 존재하여 초점요소의 [F]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FP의 지정어 자리를 기착점을 갖는다. 둘째,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 구문은 주어-(조)동사의 도치를 유발시킨다.

반면에 세 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차이점이 있다. 단문과 복문에서 부정어전치구문이 초점자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조동사가 초점투사의 중심어 F로 이동하여 주어-조동사 도치를 유발시키는 반면에 최소격도치구문에서는 이런 초점자질의 점검을 위하여 동사가 초점투사의 중심어 F로 이동하여 주어-동사 도치를 유발시킨다. 한편, 단문에서의 *wh*-의문문 구문은 부정어전치구문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나 복문에서는 부정어전치구문과는 달리 주어-조동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를 매입절에서의 *wh*-요소가 FP의 지정어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CP의 지정어 자리로 가기 때문이라 가정하였다(주석(1)참조). 이에 대한 분명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Aissen, J. (1975) "Presentational-There Insertion: A Cyclic Root Transformation," In *Papers from the Elev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 Society, 1-14.
- Aissen, J. (1991) "Topic and Focus in Mayan," *Language* 68, 43-80
- Authier, M. (1992) "Iterated CPs and Embedded Topicalization," *LI* 23, 329-336
- Bresnan, J. (1994)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al Grammar," *Language* 70, 72-131.
- Browning, M.A. (1996) "CP Recursion and *that-t* Effects," *LI* 27, 237-255
- Chomsky, Noam (1977) "On *wh*-movement," In P.W. Culicover, T. Wasow and A. Akmajian (eds.) *Formal Syntax*. New York: Academic Press.

- Culicover, P.W. (1991) "Polarity, Inversion, and Focus in English," *ESCOL* 91, 46-68
- Culicover, P.W. (1991) "Topicalization, inversion, and complimentizers in English," In *OTS Working Papers: Going Romance and Beyond*, (ed.) Denis Delfitto, Martin Everaert, Arnold Evers, and Frits Stuurman, 1-43. Utrecht: University of Utrecht.
- Culicover, P.W. (1993) "Evidence against ECP accounts of the *that-t* effect," *LI* 24: 557-561
- Culicover, P.W. and Michael Rochemont (1983) "Stress and focus in English," *LA* 50, 123-165
- Green, G. (1976) "Main clause phenomena in subordinate clauses," *Language* 52, 382-97.
- Horvath, J. (1981) "Focus in Hungarian and the X-bar Notation," *Linguistic Analysis* 2, 175-197
- Horvath, J. (1986) *FOCUS in the Theory of Grammar and the Syntax of Hungarian*, Foris, Dordrecht.
- Horvath, J. (1995) "Structural Focus, Structural Case, and the Notion of Feature-Assignment" in P. Downing and M. Noonan eds, *Word Order in Discourse*, John Benjamins, Amsterdam.
- Koizumi, M. (1994) "Layered Specifiers," *NELS* 24: 195-209.
-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26. MIT Press.
- Levine, R. (1989) "On focus inversion: Syntactic valence and the role of a SUBCAT list," *Linguistics* 17, 1013-55.
- Pesetsky, D. (1989) "Language Particular Processes and the Earliness Principle," ms., MIT.
- Rochemont, M. (1986) *Focus in Generative Grammar*.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Rochemont, M. and Culicover P. (1990) *English Focus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din, C. (1986) *Aspects of Bulgarian Syntax: Complementizer and Wh Constructions*, Slavica, Columbus.
- Rudin, C. (1992) "Topic and Focus in Bulgarian," in *Acta Linguist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 Watanabe, A. (1993) *AGR-based Case Theor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A-bar System*, MIT dissertation.
- Yanagida, Y. (1994) "Focus Projection and Wh-Head Movement", *Minimalist Approaches to Syntax and Morphology*,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Hankuk Publishing Co.
- Yanagida, Y. (1995) *Focus Projection and WH-head Movement*,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Yanagida, Y. (1996) "Syntactic QR in Wh-in-situ languages", *Lingua* 99, 21-36